



오가타 마사미씨

1957년 12월 28일생

1996년의 정부최종해결책에 의한 의료사업을 신청했지만, 해당하지 않음. 그 후, 기각당하면서도, 이의신청과 행정불복심사청구를 거듭하여, 2006년 제2회 행정불복심사청구에서 인정됨.

2007년 9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건구점 경영.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회 부회장.  
미나마타시 쓰키노우라 재주

저는 2007년 3월 15일에 미나마타병환자로서 구마모토현 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50살이 되지만, 패해를 받은 것은 50년전부터 였습니다.

저는 아시키다초의 메시마라는 작은섬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났고, 어업을 하였으며 선주였습니다.

1959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발병하여, 급성 극증(劇症)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되고, 같은해, 여동생이 태어났지만 태아성 미나마타병환자였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을 포함하여, 미나마타병 인증환자가 20여명입니다. 당시 모발수은량의 검사결과에는, 가족전부 다 높은 수치의 수은량이 검색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음식물을 먹었지만, 저는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은적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 자신이 미나마타병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미나마타병으로부터 줄곧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아무리 감추려해도 감춰지지 않아, 38살때, 처음으로 미나마타병환자 신청을 했지만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나마타병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38년후에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나마타병과 정면으로 마주칠 것을, 미나마타병과 싸워나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반성하는한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구마모토현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미나마타병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9번이나 기각되었지만, 구마모토현에 고소하는 동안, 나 자신이 솔직한 마음으로 고소해 나간다면 사회는 행복하게 해줄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나마타병을 통해 세상에는 안되는 일이 없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 지하게 마주 향해야 한다는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나마타병으로 잃은것이 아주 많지만, 반대로 몰랐었던 많은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